

보도시점 2026. 6. 24.(수) 12:00 / 배포 2026. 6. 24.(수) 08:30
< 6. 25.(목) 조간 >

202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분석·공개

- 지주회사 제도, 대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로서 안착 -
- CVC 13개사, 자금 수요가 급한 초·중기 벤처기업들에 1,048억원 투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CVC’*) 현황을 분석·공개하였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체제는 주요한 지배구조 형태로 자리잡았고, CVC는 초·중기기업 투자를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CVC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즉 기업이 소유한 벤처캐피탈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비지주체제 CVC가 모두 있을 수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일반지주회사 CVC’를 ‘CVC’로 약칭

<지주회사 현황>

’25년 12월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총 173개로서, 전년(177개)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증가 추이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지주회사의 최소 자산 요건이 상향(1천억 원 → 5천억 원)된 후 지주회사 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1년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 (’17)193개 → (’18)173개 → (’19)173개 → (’20)164개 → (’21)168개 → (’23)174개
→ (’24)177개 → (’25)17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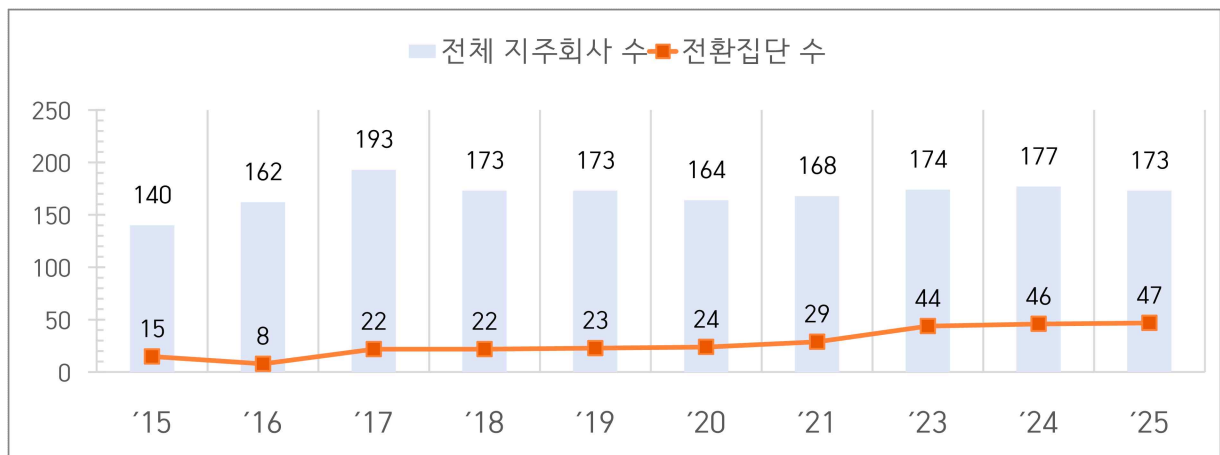
’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102개 대기업집단의 절반인 51개 집단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4년 말 50개 집단보다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명화학』, 『한국콜마』, 『오리온』, 『희성』이 이미 지주회사를 보유한 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삼성』의 경우, 기존에는 집단 내 지주회사가 없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주)의 바이오시밀러분야가 인적분할되어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주)가 신설되었다.

○『신세계』는 기존 지주회사 (주)에메랄드SPV가 모회사 (주)이마트에 합병되어 소멸하였고, ○『중앙』, 『에코프로』의 경우 기존 지주회사[(주)콘텐츠리중앙, (주)에코프로]의 지주비율(지주회사 자산 대비 자회사 지분 비중)이 감소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영원』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지주회사 중심의 지배구조로 전환하였거나 당초에 그러한 지배구조였던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은 47개로서, 이 역시 '24년 말보다 1개 증가하였다. 전환집단의 수는 '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투명한 구조가 장점인 지주회사 체제가 대기업집단들의 선택을 받아 주요 지배구조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 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 회사 자산 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집단

< 연도별 지주회사 및 전환집단 수(단위: 개) >



한편, 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말 기준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3조 1,754억원으로, 전년(3조 165억원) 대비 1,589억원 증가하였다. 평균 부채비율은 39.3%로서, 전년(43.7%)대비 4.4%p 낮아졌고, 법률상 한도(200%) 대비 충분히 낮은 수준이다.

소속회사 현황을 보면, 전체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357개로 지주회사 1곳당 13.9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3.7%(상장 42.0%, 비상장 87.0%), 84.5%(상장 46.1%, 비상장 86.8%)로서, 법상 의무지분을 요건(상장 30%, 비상장 50%)을 모두 상회하고 있었다. 종속회사를 지배하려면 충분한 지분을 소유한 상황에서, 소유구조와 지배구조가 일치되게 지배하여야 한다는 지주회사 법제의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CVC 현황>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벤처투자 촉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22년부터 일정 요건** 하에 일반지주회사가 제한적으로 CVC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 제3항 제3호 및 제4항

** 공정거래법 제20조: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 100%를 보유, 투자행위만 허용(용자 등 타금융업 금지),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40% 이내 제한 등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25년말 기준 총 13개사로 전년(14개사) 대비 1개사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기존 CVC (주)두산인베스트먼트의 지주회사인 (주)두산이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른 것으로, 해당 회사는 지주 체제 밖에서 벤처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13개 중 10개사(76.9%)는 CVC 제도 도입 이후 새롭게 설립·등록된 CVC로, 일반지주회사들은 CVC를 통해 벤처기업들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25.12월말 기준) >

연번	지주회사명	CVC명	유형	구분	등록일 (전환·편입일)
1	포스코홀딩스(주)	포스코기술투자(주)	신기사 ^①	지주 전환	'04.08.18. ('22.03.02.)
2	(주)지에스	(주)지에스벤처스	신기사	신규 등록	'22.05.27.
3	씨제이(주)	씨제이인베스트먼트(주)	벤처사 ^②	체제 내 편입	'20.02.18. ('22.08.12.)
4	(주)효성	효성벤처스(주)	신기사	신규 등록	'22. 09. 22.
5	(주)엘엑스홀딩스	(주)엘엑스벤처스	신기사	신규 등록	'23.09.26.
6	(주)세아홀딩스	(주)세아기술투자	신기사	신규 등록	'23. 03.15.
7	동원산업(주)	동원기술투자(주)	신기사	신규 등록	'22.03.31.
8	동국홀딩스(주)	동국인베스트먼트(주)	신기사	신규 등록	'24.08.23.
9	(주)빗썸홀딩스	(주)빗썸인베스트먼트 (구 (주)비티씨인베스트먼트)	벤처사	지주 전환	'18.12.28. ('22.01.01.)
10	(주)대웅	(주)대웅인베스트먼트	벤처사	신규 등록	'23.04.17.
11	(주)에프앤에프홀딩스	(주)에프앤에프파트너스	신기사	신규 등록	'22.07.07.
12	한일홀딩스(주)	한일브이씨(주)	신기사	신규 등록	'22.12. 23.
13	(주)에스제이엠홀딩스	(주)에스제이엠인베스트먼트	신기사	신규 등록	'24.03.11.

① 신기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② 벤처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회색 음영은 대기업집단 소속의 CVC

CVC 13개사는 총 85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이며, 이 중 '25년에 신규로 설립된 투자조합은 15개로, '24년(10개) 대비 5개 증가하였다. 투자조합에 출자하기로 한 약정금액 역시 3,945억 원으로 전년(3,330억원) 대비 615억원 증가하였다. 15개 조합의 평균 출자약정금액은 263억원인데, 이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VC)들이 각각 결성한 조합들의 평균 약정금액 160억원(중기부, '26.2.13.)보다 64.4% 많은 규모이다. 특히, 15개 신규조합에 실제로 납입된 투자금 805억원 중 65.2%인 525억원이 CVC 소속 기업집단이 납입하였다는 점에서, 기업집단 내부의 유보금이 CVC를 통해 벤처생태계로 유입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5년 중 CVC 13개사는 151건의 벤처투자를 집행하였으며, 총 규모는 1,939억원에 달한다. '24년 투자규모인 2,451억원 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23년의 1,764억원보다는 증가한 규모로서, CVC를 통한 벤처투자 추이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의 경우 4개의 CVC가 총 133억 원(총 투자규모의 6.9%)을 투자하였다.

투자대상 기업의 업력 분포를 보면, 자금이 많이 필요한 초기기업(업력 3년 미만) 및 중기기업(업력 3~7년)에 대한 투자 비중이 '24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기업에 대해 '25년 투자된 금액은 271억원으로 '24년과 같으나, 전체 투자금액에서의 비중은 14.0%로 '24년(11.1%) 대비 2.9%p 증가하였고, 중기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은 777억원, 비중은 40.1%로, '24년(755억원, 30.8%) 대비 22억원, 9.3%p 증가하였다. 이들에게 '25년 투자된 자금은 총 1,048억원에 달한다. CVC가 모험자본으로서, 벤처기업들이 데스 밸리(death valley)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투자비중은 AI·페이먼트 서비스 등의 ▲ICT 서비스 분야가 24.9%로 가장 높으며, ▲바이오·의료 분야가 23.3%, ▲전기·기계·장비 분야가 2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향후계획>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와 CVC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우리나라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선진화, 그리고 대기업과 벤처생태계의 동반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실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압력을 형성하여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행태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구조 등의 건전성을 한눈에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업집단 건전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정보가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붙임1> 202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
캐피탈 현황 분석 결과**

- [참고1] 지주회사 변동 현황
- [참고2] 중간 지주회사 현황
- [참고3]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등 현황
- [참고4] 대기업집단 소속 벤처캐피탈(CVC 포함) 현황
- [참고5] 대기업집단 소속 벤처캐피탈(CVC 제외) 재무현황

<붙임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목록('25.12월말 기준)

담당 부서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정보분석팀	책임자	팀 장	안석우 (044-200-4830)
		담당자	사무관	문정선 (044-200-4834)
			조사관	김가인 (044-200-4835)

